‘펫산업’ 등에 업은 수의예과… 10명 중 8명 수능반영

여러 갈래 대학가는 길

⑫ 제주대 수의예과

전국10개 대학 498명 선발
수시 61.7% 수능최저 반영
학생부 평균 ‘1.1~2.4 등급’

수의예과는 펫산업 인기에 따라 관심이 커지는 학과로 꼽힌다. 하지만 수의예과 선발인원은 전국 10개 대학 498명에 불과하다. 각 대학 2019학년도 전형계획안을 기준으로 이들 대학들은 정원의 60.8%(303명)를 수시에서 뽑고, 정시모집 선발인원은 39.2%(195명)이다. 서울대의 경우 정원 40명 전원을 수시에서 뽑고 나머지 대학은 수시, 정시로 나눠 선발한다.

수의예과 신입생 10명 중 6명을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치르는 수시모집에서 뽑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향력은 간과할 수 없다. 수시모집 인원의 61.7%인 187명을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수능 위주전형인 정시 선발인원까지 합하면 총 76.7%를 수능 성적을 반영해 선발하므로, 수의예과를 지원하려는 수험생은 수능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학별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보면, 서울대는 수능 3개 영역에서 각 2등급 이내를 요구해 수능최저학력 기준이 가장 까다롭다. 제주대·경북대·충남대는 수능 3개 영역 등급합 6 이내이고, 강원대·충북대는 수능 3개 영역 등급합 7 이내를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수의대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최소한 수능 국어, 수학가형, 영어, 과탐 중 3과목 이상은 2등급 이내를 받는 것이 좋다.

수의예과 수시모집 전형으로는 학생부교과전형 선발인원(49.8%)이 가장 많고, 학생부종합전형(41.6%) 선발인원 또한 10명 중 4명으로 적지않다. 논술전형은 건국대와 경북대 2개교에서만 치르고 선발인원도 8.6% 정도다. 제주대의 경우는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전형 비율이 높다. 수시모집 선발인원 20명 중 18명은 학생부교과로, 2명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한다. 학생부교과전형은 면접 없이 학생부 성적만으로 선발하므로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은 면접 준비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학생부교과전형 합격자들의 학생부 등급은 어느 정도일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운영하는 대입포털 ‘어디가’(adiga.kr)를 보면, 2017학년도 수의예과 학생부교과전형 합격자들의 학생부 성적 평균은 1.1등급~2.4등급 내외다. 경상대·경북대는 합격자 학생부 평균 등급이 1.1로 매우 높다. 이어 전북대는 1.5등급, 강원대 1.7등급, 충남대 1.9등급, 제주대 2.4등급 정도다. 결국 수의예과 합격이 가능한 학생부 등급 수준보다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올해 발표되는 전년도(2018학년도) 입시 결과 발표가 나오면 이를 체크해 성적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해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제주대 수의예과에 합격한 A 씨의 수능 성적은 영어, 국어, 수학나, 탐구 2과목 모두 2등급을 받아 국수탐 3과목 합계 등급이 6이었다.

A 씨는 수능 국수탐 영역별로 별도의 학습전략을 세웠다. 국어는 문제풀이 순서를 정해놓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썼다. 화법작문(15문제), 문학(15문제), 독서(15문제)에 각 최대 20분, 30분, 30분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풀이연습을 했다. 특히 지문을 읽기 전 문제를 먼저 볼 문제를 판단해 효율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썼다. 내용 확인 문제는 지문 전반에 걸쳐서 근거가 분산되어 있어 문단마다 읽으면서 풀어야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수능 수학은 문제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자주 틀리는 패턴과 유형을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평소 자주 틀리는 형태의 문제 때문에 시간을 허비해 풀 수 있는 다른 문제 풀이 시간이 모자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A 씨는 적은 양의 문제라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공부해 감각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자주 틀리는 패턴을 익혔다.

수능 탐구영역은 개념에 대한 반복 학습과 기출문제 줌심으로 어려운 문제 풀이 훈련에 집중했다. 단원별로 속도를 높여 인강을 훑는 방법과 모의고사 쉬는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책을 보지 많고 백지에 암기 개념을 적어 빈틈을 찾는 공부 방식도 효과적이라고 했다.

A씨는 “모의고사를 채점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부족한 요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간이 부족했다면 어디에서 시간이 많이 소모되었는지, 실수를 했다면 문제 이해과정에서 한 것인지 또는 풀이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인지 다시 상기해 분석해 보는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도움말=종로학원하늘교육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제주대 전경 /제주대학교

#2018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전형을 통해 제주대 수의예과에 합격한 A 씨는 대학을 졸업한 뒤 1년 간 재수 후 재입학한 케이스다. 이미 받아 놓은 학생부 등급은 1.5등급대로 높아, 학생부교과전형 지원이 가능했고 합격할 수 있었다. 다만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합격이 어려웠다. 대다수 수의예과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대학가 소식

중앙대
개교100주년 두산 응원전

중앙대(총장 김창수)는 11일 오후 6시30분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두산베어스의 홈경기에서 ‘개교 100주년 기념 중앙대-두산 응원전’을 펼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응원전에는 김창수 총장과 2500여명의 중앙대 재학생 및 교직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중앙대 안성캠퍼스 신정은 부총학생회장이 시구를 하고, 서울캠퍼스 조승현 총학생회장이 시타를 한다.

중앙대 관계자는 “두산베어스 응원전은 구성원들이 학업과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어 만족도가 높다”며 “올해는 중앙대 개교 100주년을 맞은 만큼 중앙가족 모두가 하나되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경희사이버대 대학원
2018 후기 입학생 모집

경희사이버대학교 대학원(원장 방성원)은 오는 14일부터 6월 18일까지 2018학년도 후기 입학생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모집 전공은 호텔관광대학원의 ▲호텔외식MBA ▲관광레저항공MBA, 문화창조대학원의 ▲미디어문예창작전공 ▲문화예술경영전공 ▲미래시민리더십·거버넌스전공 등 2개 대학원의 5개 전공이다. 원서는 대학원 홈페이지(http://grad.khcu.ac.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전형은 서류평가 40%(자기소개서 20%+연구계획서 20%)와 심층면접 60%이다.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한용수 기자

서울대대학행정교육원
교직원용 영어 참고서 발간

서울대학교 대학행정교육원(원장 성삼제)은 10일 교직원용 영어 참고서 ‘교직원을 위한 대학행정영어’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책은 대학 행정 실무자가 집필한 만큼 대학 내 실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맞춤형 교재로, 교무, 서무, 기획, 시설 등 다양한 행정에 사용되는 영어가 정리돼 있고, 서울대가 지정해서 사용하는 기구명, 직책명 등도 찾기 쉽게 부록으로 첨부했다. 책에는 대학 직원들이 업무에서 익숙하게 사용하면서도 영어 표현을 모르거나 번역하기 까다로운 부분들에 대한 상세 설명화 정보가 담겼다.

저자인 조문주 씨는 2005년 서울대 홍보팀에 입사해 12년 간 재직하면서 대학의 영문 홍보물 제작을 담당해오고 있다. 저자는 책 서문에서 “한 사람의 번역이라기보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첨삭이 누적된 결과물이라 더 의미가 있다”면서 “교직원들이 유용하게 쓰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19개大 기숙사 신설… 9462명 보금자리 마련

한국외대·인천대·삼육대 등
월세 ‘20만원’ 시세보다 저렴

올해 한국외대, 인천대, 삼육대 등 전국 19개 대학 캠퍼스에 기숙사가 개관해 대학생 9462명이 신규로 입주한다. 평균 월세는 20만원 내외로 대학가 인근 원룸 등 주거비용보다 저렴하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부터 대학생 주거안정과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질 좋고 저렴한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 확충을 통해 2022년까지 대학생 5만명을 추가 수용하도록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는 대학 기숙사 신설에 정부 예산 2753억 원이 투입된다.

기숙사 형태는 국립대 민간임대형기숙사(BTL) 7곳(5631명)과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저금리로 공공기금(주택도시기금, 사학진흥기금) 지원을 통해 건립되는 사립대 행정(공공)기숙사 4곳(1469명), 사립대 자체재원으로 건립하는 기숙사 8곳(2362명)이다. 올해 3월 개관한 기숙사 평균 월세는 국립대는 19만4000원, 행복(공공)기숙사는 21만8000원, 사립대는 21만4000원이다.

국립대 민간임대형기숙사는 올해 1학기 서울과기대, 순천대, 인천대, 제주대에 개관했고, 2학기에는 목표해양대 부산대 본교와 양산캠퍼스, 재정캠퍼스 기숙사가 문을 연다.

인천대는 송도캠퍼스기숙사 개관으로 기숙사 수용률이 18.6%(기존 9.9%)로 높아져 학생 주거여건이 크게 향상됐고, 2학기 문을 여는 목표해양대 기숙사는 목포시청과 협업을 통해 기숙사 상·하수도 요금을 기존보다 45%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 3월 개관한 서울과기대 수림학사(위), 인천대 BTL 기숙사 조감도(아래) /교육부

공공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사립대 행복(공공)기숙사는 강릉영동대, 대경대 경산캠퍼스, 원광보건대, 전주비전대에서 개관했다. 원광보건대의 경우 기숙사 건립 시 학교재정 자부담 비율을 높여 학생 주거비 부담이 월 19만원으로 공공기숙사 중 가장 저렴하다. 전주비전대는 기숙사는 대규모 세미나실(450명)과 체력단련실 등을 지역주민에 개방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대학 자체 재원으로 설립되는 사립대 기숙사는 1학기 개원한 유원대, 한남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외대 기숙사로 평균 월세는 21만4000원이다. 4인실인 유원대는 12만7000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3일 실인 한남대 기숙사는 13만8000원이다. 2학기에는 삼육대, 수원여대, 부산경상대, 신한대 4개 대학 기숙사가 문을 열 예정이다.

교육부는 현재 추진중인 국립대기숙사 10곳, 행복기숙사 11곳(공공기숙사 8곳, 연합기숙사 3곳)과 함께 국·공유지에 건립해 인근 여러 대학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연합기숙사 등 신규 사업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학생들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해 세금 감면과 공공요금 절감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 중이다.

류정섭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기숙사 개관식과 학생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다양한 현장의견을 반영해 대학생 주거 안정과 주거 부담 경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7년 4월 1일 기준으로 전국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평균 21.2%로, 학교 유형별로 국·공립대가 24.8%로 사립대(20.2%)보다 높고,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기숙사 수용률(24.9%)이 수도권(16.0%)보다 높다.

경북대, 강원대, 한밭대 등 국립대 10곳이 2019년부터 개관을 목표로 민간 자금을 유치하는 민자임대형 기숙사 건립이 추진 중이고, 한성대와 인천재능대 등 8개 대학에는 주택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행복(공공)기숙사는 2019년 1학기부터 문을 연다. 인근 대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연합기숙사는 2020년 3월 서울 동소문동과, 응봉동, 충남 천안시에 각각 들어설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